

서민가계, 빚갚기 정말 힘드네

원리금 상환부담률 20%로 크게 상승

경기 하강국면 ... 가계 부채 부담 커져

1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채가 소득 증가 속도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경기도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가계의 부채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득의 20%는 대출 갚느라-' =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많은 국민·우리·신한·하나·SC제일·농협 등 6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률(DSR)을 산출한 결과 2005년말 15.3%에서 2006년말 19.3%에 이

어 작년말에는 20.2%로 높아졌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가계의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 합계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가계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20.2%라는 것은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천만원일 경우 202만원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연간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도 2005년말 10.2%, 2006년말 12.0%, 작년말 13.2% 등으로 높아졌다.

특히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천만~5천만원(저소득)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작년말 기준으로 22.3%였으며 연소득 8천만~1억원(고소득)가계는 15.7%로 두 계층간의 격차가 6.6%포인트에 달했다. ◇ 채무상환 능력도 약화일로 = 한국은행은 또 가계의 가용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7년말 현재 1.48배를 나타내 2006년말의 1.43배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04년말 1.27배에서 2005

무역적자 5개월째 지속

4월중 4천만달러 ... 수출증가율 27% 3년8개월만에 최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 행진이 5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나 수출의 높은 증가세로 인해 적자 규모는 대폭 줄었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80억2천만달러, 수입은 380억6천만달러로 4천만달러의 월간 적자를 기록, 5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4월의 적자 규모는 1월(38억5천만달러), 2월(12억8천만달러), 3월(8억2천만달러) 등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처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고유가 등으로 원유 수입액이 증가했지만 수출 또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99.7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원유 도입불량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도입금액은 무려 57% 증가한 66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4월 수출도 27% 증가하면서 2004년 8월(28.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보험세, 컴퓨터는 2% 감소했지만, 석유제품(62%), 선박(47%), 일반기계(40%), 무선통신기기(39%), 액정디바이스(32%), 자동차부품(31%), 철강(24%), 가전(14%) 등은 모두 큰 폭 늘어났다. 수입은 원자재 부문에서는 원유 등 에너지와 철강 등에서 큰 폭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했고, 자본재는 컴퓨터부품(-21%), 반도체 제조장비(-39%) 등은 급감했지만 자동차부품(18.4%), 집적회로반도체(23.7%)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삼성 '파브 깐느 650' 2중 출시

삼성전자는 1일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을 적용한 풀HD PDP-TV '파브 깐느 650' 127cm(50인치), 147cm(58인치) 2중을 출시했다. /연합뉴스

“소비 늘면 고용도 더 늘어”

KDI 보고서 ... 투자 증가보다 고용효과 커

투자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소비가 늘어나는 게 고용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에는 15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총 수요 항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결과 실질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실질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고용유발효과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추정결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분기에 전체 고용증가율이 0.13%포인트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0.29%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실질 투자증가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2천명, 장기적으로 2만6천명의 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덧붙였다. 순수출 증가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제조업 고용은 소비보다 투자나 순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투자와 순수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내수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25~49세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고 평균직년령인 55세 이전의 25~54세 인구는 내년부터는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용을 하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빌 게이츠 회장 만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계적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IT(정보기술) 및 게임분야의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아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

해 세계적인 기업인과 석학들의 지혜, 경험, 경향을 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게이츠 회장에게도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게이츠 회장은 국내 자동차 업체 및 정보통신연구원 등과 차량 IT혁신센터 건립,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 건립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작년 M&A 34조원 ... 전년보다 55% ↑

중견그룹 인수합병 활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국내기업의 기업 인수합병(M&A) 규모가 전년대비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중견그룹의 신(新)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M&A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앞둔 금융업종의 M&A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이제는 재계에서 M&A가 사업영역의 상시 구조

조정이나 성장엔진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정위에 신고된 국내기업 관련 기업결합 금액은 총 33조9천억원으로 전년(21조8천억원)보다 55.0%나 늘었다. 기업결합 건수도 631건에서 742건으로 17.6%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건당 평균금액은 567억원으로 전년(441억원)보다 28.6% 늘었다.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115건, 263조1천억원이었으며, 이를 합한 지난해의 총 기업결합심사 건수와 금액은 857건, 297조원으로 전년대비 15.2%, 17.2%씩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로 다른 업종간 결합인 혼합결합이 65.9%(565건)로 가장 많았고 수단별로는 주식취득이 46.8%(401건)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주택 우선공급’ 신혼부부

5~10년간 재당첨 금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우선 공급받아도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돼 수도권에서는 10년동안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을 분양받은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내집마

련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돼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진다.

을 하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1만5천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자녀가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저소득가구에 해당돼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하지만 소형 분양주택을 우선공급으로 분양받았다가 큰 집으로 늘러가는 데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5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인아정밀	자재구매관리, 생산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3	062-954-1050
센트럴관광호텔	호텔서비스 정규직 사원(음주서비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3	062-383-7575
㈜위드커뮤니케이션	삼성전자 서비스 고객센터 접수 및 상담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2-250-3500
포토양주	포토샵작업, 촬영보조(내근직)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7	062-222-0945
보현산업	사무보조, 엑셀, 전산업무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7	062-956-9600
사린사이언스	정규직 사무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07	062-265-0071
㈜브릿지커뮤니케이션	광고/편집 디자이너 신입, 경력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7	062-385-7447
HRN	[SK텔레콤 연봉2300만]미남상담원/순천기차국 남사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5/07	011-9473-1425
(유)남일건설기술공사	토목기사(CAD설계)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08	062-603-1587
㈜한맥D&S	납품영업/상하차 납사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5/08	061-393-8141
인도르컴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09	062-236-0217
여원NCC	[전남여수]2008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기술/제조)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3	02-6050-2435
대선산업개발	본사 공무 및 현장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651-3371
센도리	건축설비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가스설비기사/전기공사기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7	062-268-5811

(광주직접콜리 512-6210 제공)

연식오래된 車 보험료 오른다

일부 손보사는 고급차 특별요율 적용

제일화재가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0.6~0.7% 인상하는 등 자동차보험료율이 5월부터 개편된다. 보험사들은 특히 출고된 지 오래된 차는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긴급출동 관련 보험료를 올리고 일부 보험사는 차량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고급차에 특별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인상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가 이날부터 연식이 오래된 차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는 등 보험료 체계를 조정한다.

롯데손보는 자기차량이 망가졌을 때 보상해주는 로장(자차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연식 2년 이하인 새 차는 평균 3.5% 낮추고 9년 이상 오래된 차는 그만큼 올린다.

제일화재도 6월부터 3년 이하 신차는 낮추고 8년 이상 된 차는 올린다.

LIG손보는 2006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는 보험료를 낮추지만 그 이전에 나온 차는 모두 높였다.

삼성화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출고 2년 이하 신차는 자차 보험료를 1~2% 내리고 7년 이상 된 차는 그만큼 올려 보험료를 받고 있다.

현대해상 역시 5월 이후 오래된 차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충전이나 잠금 해제, 비상 급유, 긴급 견인 등을 해주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롯데손보는 5년 이하인 경우 2% 내리고 그보다 노후된 차는 1.5~2% 인상한다. 제일화재도 낡은 차(5년 초과)의 보험료를 4월부터 올려 적용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3월부터 낡은 차의 보험료를 올렸다.

일부 보험사는 1억원 이상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료를 올려받는 특별요율을 신설했다. 값싼 외제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모든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작년에 못챙긴 연말정산

이달에 다시 신청하세요

지난해 말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5월에 빠뜨린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말정산 기간에 바쁜 업무나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친 납세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제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제출해도 되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할 때도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말 달라진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고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양 등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인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 데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됐고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대부업체 과다 대부행위 못한다

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

1일 금융당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영업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부채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과잉대부를 금지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500만원이나 1천만원 이상의 대출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업체는 대부 계약서에 고객이 자필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적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백지 계약서를 받아 대부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자율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상호에 '대부'라는 문구도 반드시 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종전 13명에서 3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